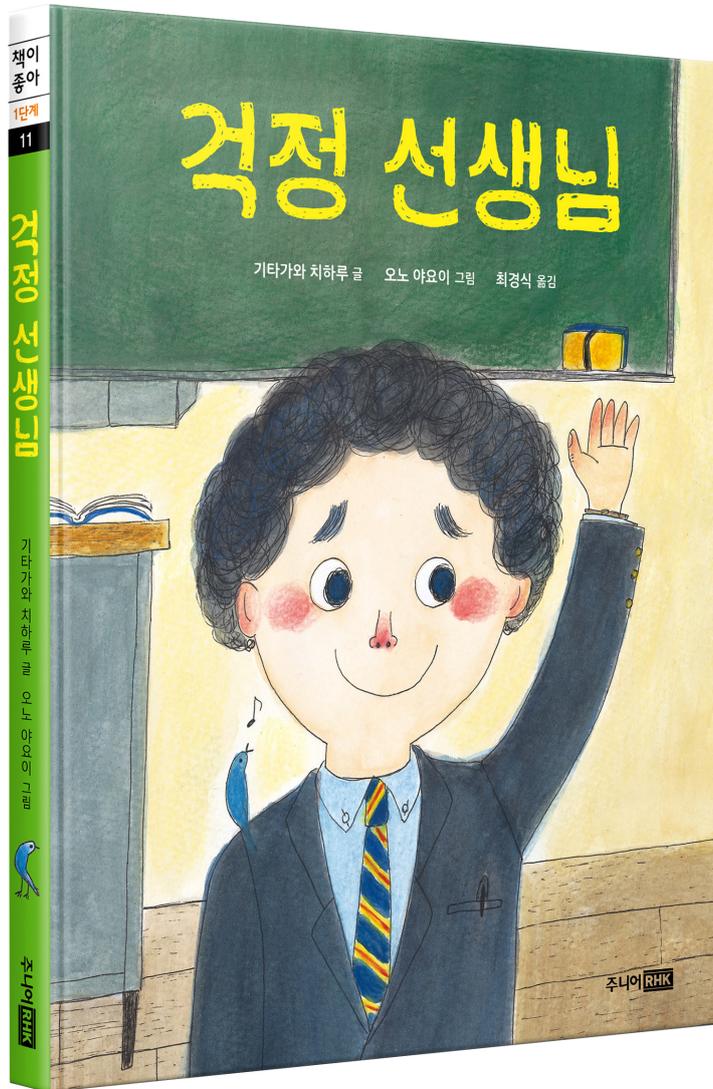


# 주니어RHK 독서 활동지 <걱정 선생님>

— 현직 초등 교사 집필 · 교사 및 양육자를 위한 설명서 수록 —



현직  
초등 교사  
강력 추천

- # 초등학교 입학
- # 실수해도 괜찮아
- # 7-9세 동화

## 걱정 선생님

기타가와 치하루 글 | 오노 야요이 그림 | 최경식 옮김 | 72쪽 | 12,000원 | ISBN 978-89-255-7697-8 (73830)

**교과 연계** (해당 학년·과목·단원에 해당되지 않아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                 |           |                    |
|-----------|-----------------|-----------|--------------------|
| 1-2 국어(가) | 2. 소리와 모양을 흉내내요 | 1-2 국어(가) | 3. 문장으로 표현해요       |
| 2-1 국어(가) | 2. 자신 있게 말해요    | 2-2 국어(가) | 3. 말의 재미를 찾아서      |
|           | 6. 차례대로 말해요     |           | 4.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요    |
| 2-1 국어(나) | 7. 친구들에게 알려요    | 2-2 국어(나) | 9. 주요 내용을 찾아요      |
|           | 11. 상상의 날개를 펴요  |           | 10. 칭찬하는 말을 주고 받아요 |

## 현직 초등 교사가 들려주는 이야기

매년 3월 말이면 ‘학부모상담주간’을 운영합니다. 아이들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교사는 양육자들을 미리 만나 걱정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앞으로의 1년에 대해 서로 점검합니다. 이 시기 부모님들은 참 많은 걸 걱정합니다. 아이한테 친구가 있는지, 수업 내용은 잘 알아듣는지, 반찬은 골고루 먹는지, 수업 시간에 판생각은 안 하는지, 발표는 잘하는지 등등 여러 걱정을 합니다. 아이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걱정이지만 사실 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될 고민입니다. 저는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먹기 싫은 음식은 잘 먹지 않습니다. 회의에 참석해서 곧잘 판생각도 하고요. 시키지 않으면 나서서 발표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낯도 조금 가립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부모님들은 어떤가요? 어른들은 자신도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하지 않은 아이 모습에 걱정하곤 합니다. 그만큼 아이에 대한 사랑이 크다는 방증이겠지만 아이의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어른이 있을 때 아이들은 더 자기답게 잘 자라납니다.

《걱정 선생님》속 주인공 타츠야는 주위 친구들도 잘 알 만큼 낯을 가리는 친구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대답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런 타츠야를 엄마도 담임 선생님도 눈썹을 내린 얼굴을 한 채 걱정스럽게 바라보지만 오히려 친구들은 타츠야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정해 줍니다. 대답을 잘하지 못할 때는 대신 말해 주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찰떡같이 소통합니다. **작품은 걱정 많은 어른과 내성적인 아이의 만남에서 짐작 가듯 아이와 어른의 걱정과 불안을 소재로 이를 이겨 내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작품의 이런 따뜻한 메시지에서 더 나아가 저는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 외부의 지적과 가르침이 아닌 스스로 노력하여 작은 성취를 이룰 때 얻을 수 있다는 깨달음에 주목했습니다.

‘자아 효능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자아 효능감은 자신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 내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신념을 말합니다. 자아 효능감을 키우려면 작은 성공을 자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 경험이 많을수록 아이는 더 스스로 노력하게 됩니다. 타츠야가 스스로 처음 기차표를 사는 데 성공하고 걱정 많은 담임 선생님의 실수를 보자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먼저 말을 걸고 가족 구성원이 아닌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첫 소풍을 가는 등 모든 처음을 경험하며 성취를 이루고 점점 자신감을 회복하며 성장하듯이요. 어른도 다르지 않습니다. 걱정 선생님도 자신의 불안과 실수를 아이들 앞에서 솔직히 털어놓고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며 자아 효능감을 찾으며 새 학기의 불안을 이겨 냅니다.

누구나 맞는 새 학기, 새 학년. **처음 경험하는 작은 일에도 머뭇거리고 당황하고, 실수를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많겠지요.** 대체 그게 뭐라고 걱정하냐며 “괜찮아!” 하며 서툰 격려를 하는 대신, **앞으로는 좀 더 근사하게, 좀 더 다정하게 응원하고 싶을 때 이 책을 건네고 싶습니다.** 《걱정 선생님》이 아이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용기’라는 씨앗에 물을 듬뿍 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성영은(안양 별말초등학교 교사)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삶이란 얼마나 멋진 일인가’를 되뇌며 14년째 초등 교사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한 해 한 해가 늘 아이들 속에 있는 작은 씨앗에 물을 듬뿍 주는 일이 되길 바랍니다. 학교 안의 소박하지만 빛나는 일상과 공들여 만든 수업 자료를 나누는 일에 행복을 느낍니다. 인스타그램 @sung\_ss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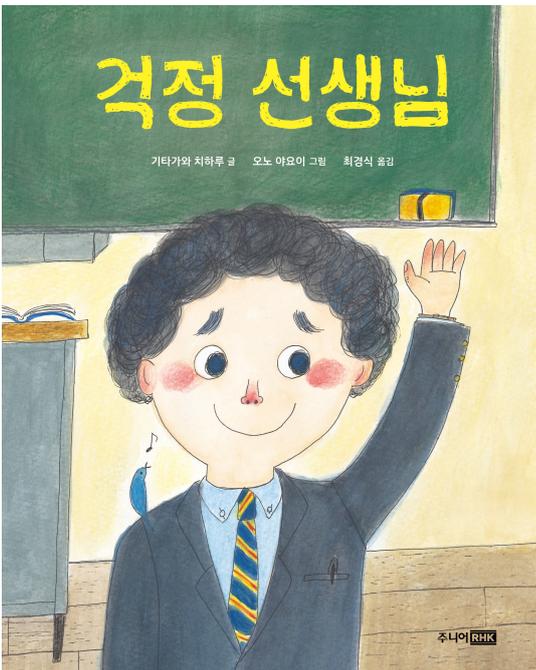


# 미션 1 : 어떤 책일까?



책을 읽기 전 심호흡을 깊이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표지 그림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아래 질문을 하나씩 읽으며 자신만의 생각을 써 보세요.  
정답은 없어요. 걱정 말아요.

1. 《걱정 선생님》이라는 제목과 표지 그림을 보고 책의 내용을 상상해 보세요.



2. 여러분은 어떤 걱정이 있었나요? 걱정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고 써 보세요.

예) 나는 물컵을 깨뜨리고 부모님께 혼날까 봐 걱정했다.

---

---

---

---

---

# 미션 2 : 어휘력 쑥쑥! 흥내 내는 말!



《걱정 선생님》 이야기에는 소리를 흥내 내는 말과 모양이나 행동을 흥내 내는 말이 자주 나와요.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걱정’ 말고 책을 다시 넘겨 보며 찾아봐도 좋아요. 각 문장에 어울리는 말을 써 보세요.

의성어

소리를 흥내 낸 말

방귀를 **뽕뽕** 껴다.

의태어

모양을 흥내 낸 말

거북이가 **엇금엇금** 기어간다.

• 호랑이는 

ㅍ	ㅍ	ㅍ	ㅍ
---	---	---	---

 낮잠을 자고 있었어.

• 원숭이들은 우리에서 

ㄷ	ㄷ	ㄷ	ㄷ
---	---	---	---

 뛰어다니며 놀고 있어.

• 비가 

ㅂ	ㅂ	ㅂ	ㅂ
---	---	---	---

 내리고 있었어.

• 

ㅈ	ㅈ
---	---

, 

ㅊ	ㅊ
---	---

 손목시계 바늘이 움직이고 있었어.

이번에는 아래 문장과 어울리는 말을 지어서 넣어 보세요. 할 수 있어요!

• 갑자기 번개가 세차게 치자 내 마음이 

--	--	--	--

 뛰었어.

• 나는 선물을 받고 신이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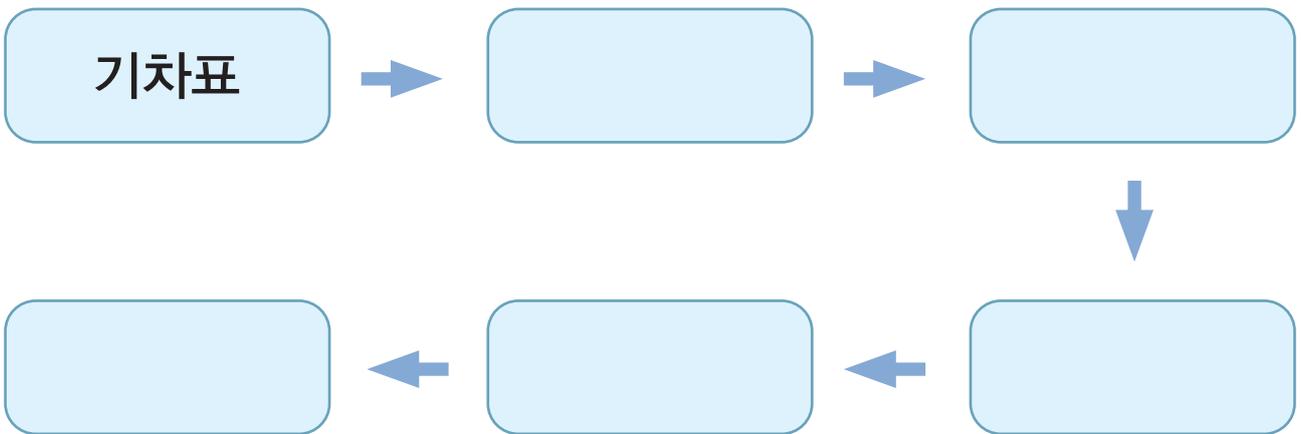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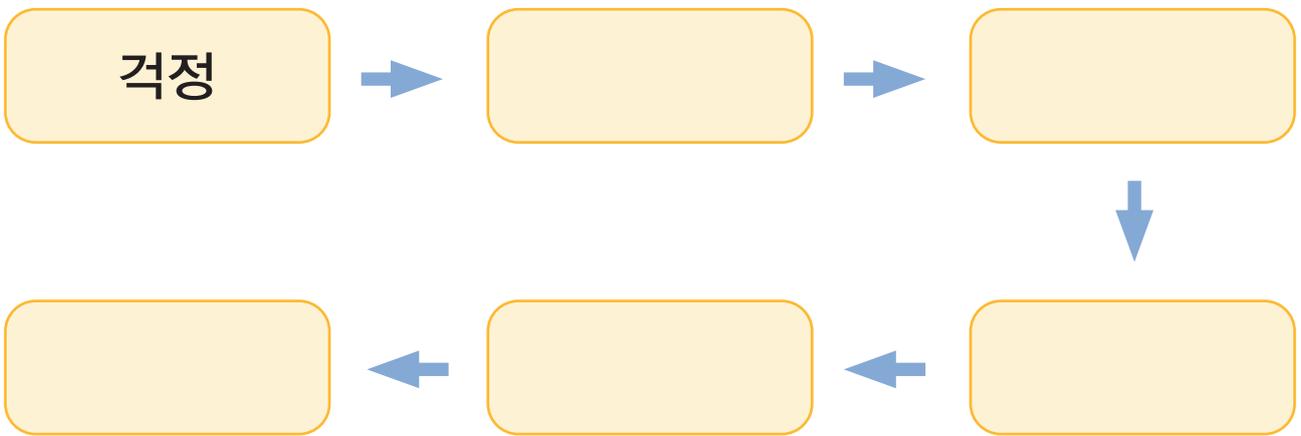
--	--	--	--

 웃었어.

# 미션 3 : 어휘력 쑥쑥! 끝말잇기 기차!



《걱정 선생님》 이야기에 나오는 단어로 끝말잇기 기차를 완성해 보세요.  
새로운 단어를 떠올리다 보면 우리의 생각도 쑥쑥 자랄 거예요.



# 미션 4-1 : 생각을 키우는 상상 주머니



주인공 소년 타츠야와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정답은 없지만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시간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고 그 까닭을 써 보세요.

걱정 선생님은 출석을 부르며 타츠야의 이름도 불렀지만 타츠야는 대답하지 못해요. 대신 같은 반 친구 스즈가 선생님에게 타츠야를 소개하며 낯을 가린다고 이야기해 주지요. 여러분은 스즈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나는 스즈가 타츠야를 대신해서 대답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나는 스즈가 타츠야 대신 대답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 왜냐하면

---



---



---



---



---



---

# 미션 4-2 : 생각을 키우는 상상 주머니



주인공 소년 타츠야와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정답은 없지만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꼼꼼이 생각해 보고 그 까닭을 써 보세요.

타츠야는 친구들에게 바나나 우산을 잃어버린 걱정 선생님의 우산을 같이 찾아보자고 말합니다. 아기 기린을 보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친구들이 함께 우산을 찾으러 가는 것이 좋을까요?

○	나는 모두 함께 우산을 찾으러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나는 우산을 찾으러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 왜냐하면

---



---



---



---



---

# 미션 5 : 문해력 쑥쑥! 마음 길 따라 이야기 정리하기



《걱정 선생님》 내용을 정리해 보는 시간이에요. 타츠야가 무사히 아기 기린을 만날 수 있게, 제시한 글과 ‘마음 길’을 따라가 보세요.



처음으로 선생님이 된 신페이 선생님은

신났다.

걱정되었다.



아기 기린을 볼 생각에 친구들은

답답했다.

억울했다.

모나카를 먹은 타츠야는 가슴이 콧 막힌 것처럼



설렘했다.

두려웠다.

기차 안에서 떠들다가 보건 선생님이 헛기침을 하자 걱정 선생님은

걱정 선생님의 바나나 모양 우산을 본 마사키는

흥미로웠다.

알미웠다.

흐뭇해했다.

당황했다.



지루했다.

호랑이를 보러 간 친구들은 움직이지 않는 호랑이를 보고



기뻐했다.

민망했다.

처음으로 걱정 선생님한테 말을 건 타츠야를 보고 선생님은

실망했다.

좋아했다.



# 미션 6 : 내 마음은 몇 도일까요?



마음의 온도가 1부터 10까지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 온도는 몇 도일까요? 마음 상태나 기분이 보통인 상태를 5 정도라고 할 때, 숫자가 높을수록 신나고 행복한 상태입니다. 또 내 마음의 상태를 색깔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일까요? 나의 마음과 기분을 나만의 색깔, 나만의 온도로 표현해 보세요. 지금의 마음을 '마음 온도계'에 써 보고, 마음 색도 칠해 보세요. 제시된 마음 단어 중에 선택해도 좋고, 다른 단어로 써 봐도 좋아요.

부끄럽다

답답하다

설레다

기쁘다

당황하다

짜증나다

실망하다

화나다

알밋다

억울하다

슬프다

무섭다

후회하다

서운하다

걱정하다

감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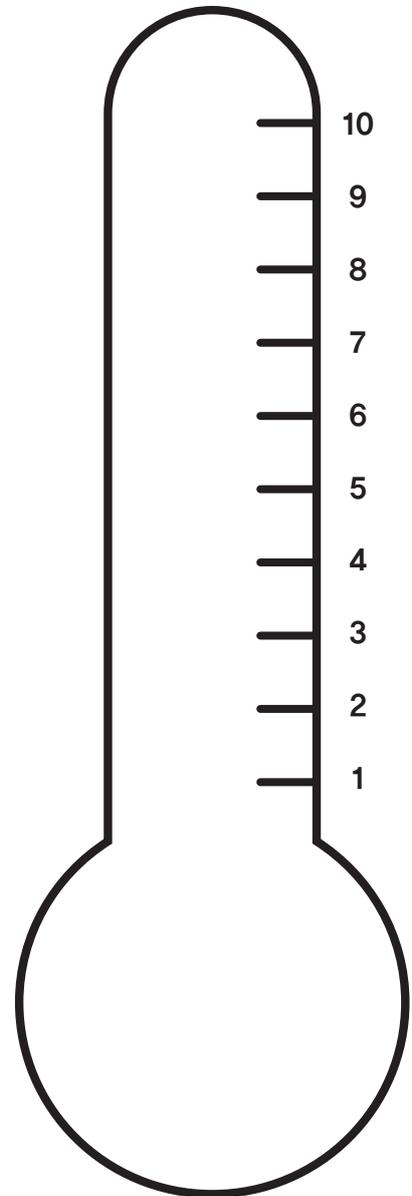
미안하다

밋다

신나다

외롭다

상쾌하다



# 미션 7 : 걱정을 없애 주는 발명가가 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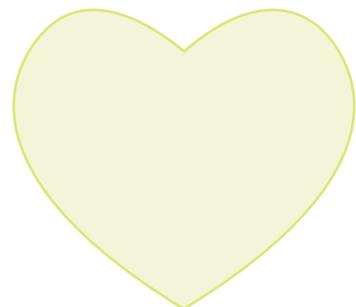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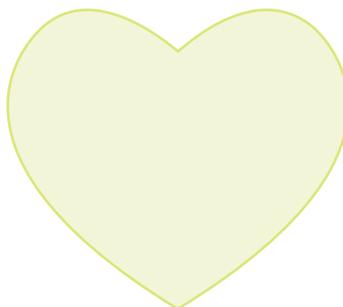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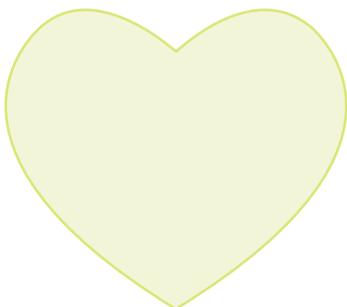


걱정을 한방에 없애 주는 발명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도 발명가가 되어 볼까요? 어떤 것이라도 좋아요. 마음껏 상상해 보고, 무엇이든 만들어 보세요.

## 예) 3분 동안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시계

제가 발명하고 싶은 물건은 '3분 동안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시계'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처음 그 순간이 너무 길게 느껴져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계를 사용하면 3분 동안 시간이 천천히 흐르니 마음의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어 걱정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나의 발명품을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소개해 보고, 소개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트 안에 써 보세요.



# 미션 8 : 도전, 버킷 리스트 만들기!



타츠야에게 편지가 왔어요. 편지를 소리 내어 읽어 보고, 도전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안녕? 난 타츠야야.

너는 겁이 많니? 나는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는 말을 잘하지 못해. 사실 마음 속으로는 열 번도 백 번도 말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 참 어렵더라. 내 친구 스즈는 내가 낯을 많이 가려서 그렇다고 해. 올해 나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걱정을 할 때마다 눈썹이 축 쳐지는 걱정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어. 선생님은 나에게 자주 “괜찮아?” 하고 묻지만 나는 언제나 괜찮지 않아. 어느 날 나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들어볼래? 동물원으로 소풍을 가던 날이었어. 나는 한번도 해 본 적 없는 일을 했어. 나 혼자 힘으로 기차표를 산 거야. 그때부터인 것 같아. 내 안의 용기가 꿈틀거리며 자라기 시작한 게. 내가 스스로 해낸 작은 일들이 나를 단단하고 강하게 한다는 걸 깨달았어. 너희도 아직 해 보진 않았지만,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작은 도전들을 생각해 보고 내 안의 능력을 키워 보길 바라. 처음 나 혼자 힘으로 산 나의 기차표처럼 네게도 그런 작은 도전과 성공이 가득하길 응원할게.

응원을 가득 담아  
타츠야가.

작지만 큰 도전!	도전 성공!
1.	
2.	
3.	

# 미션 9 : 칭찬 쪽지 쓰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칭찬은 받을 때도 좋지만 다른 사람을 칭찬해 줄 때도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야기 주인공들을 칭찬해 보고, 따뜻한 마음을 가득 담아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칭찬해 보세요.

타츠야

Empty speech bubble for writing a compliment to Tatsuya.

걱정 선생님

Empty speech bubble for writing a compliment to the Worried Teacher.

스즈

Empty speech bubble for writing a compliment to Suzu.

히로

Empty speech bubble for writing a compliment to Hiro.

나

Empty speech bubble for writing a compliment to oneself.



## 교사와 양육자를 위한 미션 안내서

미션 활동지를 보고 걱정했나요? '이 많은 걸 언제 다해'라든지 '틀리면 어떡하지?'라든지 말이에요.

미션 활동지는 모두 빠짐없이 하는 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아이가 쓰기 활동을 싫어하다면, 미션 활동지의 내용을 보고 말로 대답해 보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스케치북에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보아도 좋아요. 원하는 미션을 골라서 해 봐도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활용해 보세요.

### 미션 활동에 앞서

#### 아이에게 책을 소개해 주세요.

《걱정 선생님》은 우리에게 익숙한 마음인 걱정을 소재로 친구들에게 많은 공감과 위로를 주는 동화입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최근 걱정하는 일이 있거나 자신감이 없을 때가 보인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책을 들고 다가가 보세요. 어른들도 걱정한다는 것, 걱정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며 타츠야와 걱정 선생님의 변화를 기쁜 마음으로 함께 느껴 보세요.

### 미션 활동에 앞서

#### 이럴 때 읽어 보세요.

- 아이가 내성적이거나 자신감 없는 모습에 나무라게 될 때
- 걱정하는 순간들을 떠올려 보고 조금 극복해 보고 싶을 때
- 서로의 걱정을 나누고 위로받고 싶을 때
- 따뜻한 학교생활 이야기를 읽으며 긴장을 풀고 싶을 때
- 다양한 마음에 대해 알아가며 마음 표현을 더 잘하고 싶을 때

### 책을 읽기 전에

#### 미션 1 : 어떤 책일까?

책을 읽기 전에 표지와 제목을 보며 상상하는 활동은 아이들의 생각 주머니를 크게 만들어 줍니다. 단, 정답은 없으니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평가하거나 지적하지 마세요.

함께 이야기를 나눈 뒤 글을 써 보고 싶어 하는 아이들에게 짧은 글을 써 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머뭇거리는 아이들이 있다면 제목이 왜 걱정 선생님일까? 요즘 걱정해 본 적 있어? 걱정할 때 어떤 표정이니?와 같이 가볍게 질문을 던져 보세요.

### 책을 읽으면서

#### 미션 2 : 어휘력 쑥쑥! 흉내 내는 말!

1, 2학년 국어 교과서에서 나오는 흉내 내는 말에 대해 알아보는 미션입니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흉내 내는 말을 찾아보고 비슷하게 지어 보는 것도 좋아요.

양육자와 아이가 번갈아가며 동물이나 물건 등을 하나 정하고 거기에 어울리는 의성어와 의태어를 지어 보는 놀이를 해 봐도 좋습니다. 아이들의 어휘력 확장에 도움이 된답니다.



### 책을 읽으면서

#### 미션 3 : 어휘력 쑥쑥! 끝말잇기 기차!

1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에는 말놀이하기 내용이 나옵니다. 다섯 고개, 수수께끼, 끝말잇기 같은 놀이지요. 이런 놀이들은 아이들이 끊임없이 낱말을 떠올려야 가능해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이야기 속에 나오는 핵심 단어로 끝말잇기 기차를 완성해 보세요. 끝말잇기 기차를 완성한 뒤에는 아이에게 이야기 속 낱말을 하나 고르게 한 뒤 그 단어로 끝말잇기를 하는 것도 좋아요.

### 책을 읽으면서

#### 미션 4-1, 2 : 생각을 키우는 상상 주머니

《걱정 선생님》 속 내용 중 사람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만한 상황을 두 가지 골랐습니다. 질문에 따라 생각해 보고 말이나 글로 표현해 보게 해 주세요. 예시문의 O와 X중에서 하나를 골라 보고 그 이유를 써 보도록 도와주세요. 활동 후에는 함께 간단히 토론해 봐도 좋습니다. 글 쓰는 힘과 생각하는 힘, 말하기의 힘이 길러질 거예요.

### 책을 읽고 나서

#### 미션 5 : 문해력 쑥쑥! 마음 길 따라 이야기 정리하기

작품 속 내용을 정리해 보며, 인물의 기분이나 마음의 상태를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제시한 글과 '마음 길'을 따라가 보세요. 《걱정 선생님》의 가장 큰 장점은 인물의 기분이나 마음의 상태가 다양하게 드러나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놀이처럼 즐기면서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 등장인물의 마음도 확인할 수 있고, 마음 단어도 많이 알게 됩니다. 마음 단어를 많이 알수록 아이들은 자신의 마음 상태나 기분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 책을 읽고 나서

#### 미션 6 : 내 마음은 몇 도일까?

마음이나 기분을 숫자와 색깔로 표현해 보는 활동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기분이 좋고 행복한 상태입니다. 마음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일지도 생각해 보게 해 주세요. 마음은 한 가지가 아니니 여러 색으로 표현해도 좋습니다. 아이의 마음 상태나 기분을 알았다면, 왜 그런 마음인지, 왜 그런 색을 골랐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아이의 솔직한 마음과 감정을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아이가 표현하는 데 어려워 하면, 제시된 마음 단어 중에서 골라 보게 해도 좋습니다. 모르는 단어는 부모님이 설명해 주어도 좋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미션 7 : 걱정을 없애 주는 발명가가 되기!**

2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서는 발명하고 싶은 물건을 생각하여 발표하기가 있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저학년 아이들은 시시때때로 ‘아,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상상합니다.

예시 글처럼 발명한 물건의 이름, 어떤 때 사용하고 싶은지, 이 물건을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세 가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글 쓰는 걸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말로 해도 좋습니다. 글을 다 쓴 뒤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하며 자신 있게 말하기 연습도 하게 해 주세요.

책을 읽고 나서

**미션 8 : 도전, 버킷 리스트 만들기!**

학기 초나 연초에 많이 하는 활동이지요. 《걱정 선생님》의 주인공인 타츠야가 보낸 편지를 소리 내어 읽어 보세요. 타츠야에게 작은 성공의 경험을 준 기차표 사기처럼 아이들도 각자의 도전 리스트를 만들어 보게 해 주세요. 리스트를 오려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두어도 좋습니다. 해 보고 싶은 도전을 신나 하며 써 낸 아이들에게 “그걸 어떻게 해?” 라는 말은 참아 주세요. 3월 말일까지, 여름방학 때까지 등 시간 약속을 정해 봐도 좋아요. 온가족이 다 함께 만들고 돌아가며 발표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미션 9 : 칭찬 쪽지 쓰기!**

칭찬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들어 본 칭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고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함께 말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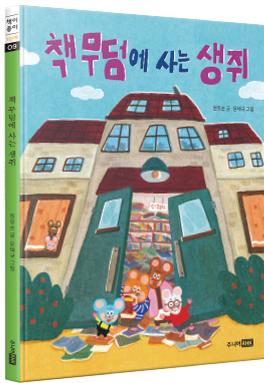
《걱정 선생님》에 나오는 다양한 인물들을 떠올려 보며 칭찬거리를 찾아 하나씩 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나 스스로를 칭찬해 보며 나의 장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변의 어른이나 친구 중에 칭찬하고 싶은 사람을 정해 칭찬해 보고 쪽지에 써서 건네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칭찬거리를 잘 찾는 아이를 무한 칭찬 해 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 함께 읽으면 더 좋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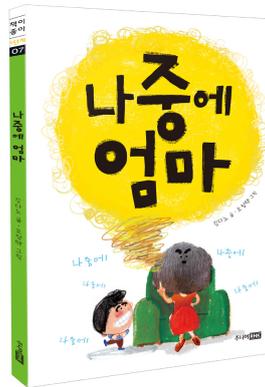
예비 입학생 및 저학년 어린이들에게 권하는 명작입니다. 어린이들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 주는 듯한 주인공을 만날 수 있어요. 책과 가까이 하다 보면,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책의 중요성을 깨닫고 싶다면



《책 무덤에 사는 생쥐》  
원유순 글 | 윤태규 그림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어른들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엄마》  
김다노 글 | 오정택 그림

친구들이 놀리고 따돌릴 때  
따끔하게 꾸짖어 주고 싶다면



《커지고 커지고 커지고》  
클라우디오 고베타 글 | 미켈레 리차르디 그림  
이현경 옮김

## 요시다케 신스케가 그린 레츠의 새로운 만남, 새로운 발견, 새로운 도전



히코 다나카 글 | 요시다케 신스케 그림 | 고향옥 옮김